

노병훈 영어강사 [ROY TI]

# 수능 한글판 영어 시험지

[샘플 버전]

m p l c h  
A P B B D r

# ROY EGON I

##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돌이켜보면 양의 수를 세고자하는 욕구만큼 세속적인 것이 문자 언어처럼 근본적인 진보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는 언제나 경제 활동을 수반해 왔는데, 그 이유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한 거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의 인간 글쓰기는 내기의 대상, 계산서, 계약서의 모음과 같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가 예언자들에 관한 기록을 갖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이익에 대한 기록을 가졌다. 사실, 많은 문명이 우리가 흔히 문화의 역사와 연관 짓는 그런 종류의 위대한 문학 작품을 기록하고 그것을 뒤에 남기는 단계에 결코 이르지 못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대부분 영수증 더미이다. 만약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는 상업적 기업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기록이 생겨난 문화에 대해 아주 훨씬 더 적게 알 것이다.

- ①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 ② 고전 문학을 통해 당대의 경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경제 발전의 정도가 문명의 발달 수준을 결정한다.
- ④ 종교의 역사는 상업의 역사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 ⑤ 모든 문명이 위대한 작가를 배출한 것은 아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홀수형 22번

영어를 한글로 정확히만 바꿔주면 수능 영어는 국어 비문학에 비해서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를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영어 문장 구조를 사용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로이쌤이 응원합니다 ☺

# ROY EGON J

##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이가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의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덕적 행위자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주는 얼마간의 예의를 습득한다. 유전자, 발달, 그리고 학습은 모두 예의 바른 인간이 되는 과정에 기여한다. 하지만 천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 작용은 매우 복잡하며, 발달 생물학자들은 그저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간신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세포, 유기체, 사회 집단, 그리고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맥락이 없으면, DNA는 비활성이다. 사람들은 도덕적이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고 말하는 누구든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와 환경은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과정, 또는 다른 어떤 발달 과정이, 천성 '대' 양육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진정 둘 다, 즉 양육을 '통한' 천성이라는 것을 안다. 인간 종의 도덕적 진화와 발달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까마득히 멀다.

- ① 문화적 관점으로부터의 인간 도덕성 진화
- ② 유전자의 진화적 과정을 연구하는데 어려움들
- ③ 아이들을 도덕적 대상자로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증가하는 필요성
- ④ 발달 생물학에서 선천적인 것 vs 후천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
- ⑤ 도덕적 발전과정에서의 복잡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 작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홀수형 23번

영어를 한글로 정확히만 바꿔주면 수능 영어는 국어 비문학에 비해서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를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영어 문장 구조를 사용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로이쌤이 응원합니다 ☺

# ROY EGON I

##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돌이켜보면 양의 수를 세고자하는 욕구만큼 세속적인 것이 문자 언어처럼 근본적인 진보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는 언제나 경제 활동을 수반해 왔는데, 그 이유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한 거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의 인간 글쓰기는 내기의 대상, 계산서, 계약서의 모음과 같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가 예언자들에 관한 기록을 갖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이익에 대한 기록을 가졌다. 사실, 많은 문명이 우리가 흔히 문화의 역사와 연관 짓는 그런 종류의 위대한 문학 작품을 기록하고 그것을 뒤에 남기는 단계에 결코 이르지 못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대부분 영수증 데미이다. 만약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는 상업적 기업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기록이 생겨난 문화에 대해 아주 훨씬 더 적게 알 것이다.

- ①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 ② 고전 문학을 통해 당대의 경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경제 발전의 정도가 문명의 발달 수준을 결정한다.
- ④ 종교의 역사는 상업의 역사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 ⑤ 모든 문명이 위대한 작품을 배출한 것은 아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홀수형 22번

영어를 한글로 정확히만 바꿔주면 수능 영어는 국어 비문학에 비해서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를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영어 문장 구조를 사용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로이쌤이 응원합니다 ☺

##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이가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의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덕적 행위자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주는 얼마간의 예의를 습득한다. 유전자, 발달, 그리고 학습은 모두 예의 바른 인간이 되는 과정에 기여한다. 하지만 천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 작용은 매우 복잡하며, 발달 생물학자들은 그저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간신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세포, 유기체, 사회 집단, 그리고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맥락이 없으면, DNA는 비활성이다. 사람들은 도덕적이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고 말하는 누구든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와 환경은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과정, 또는 다른 어떤 발달 과정이, 천성 '대' 양육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진정 둘 다, 즉 양육을 '통한' 천성이라는 것을 안다. 인간 종의 도덕적 진화와 발달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까마득히 멀다.

- ① 문화적 관점으로부터의 인간 도~~덕~~성 진화
- ② 유전자의 진화적 과정을 연구하는데 어려움~~들~~
- ③ 아~~이~~들을 도덕적 대상자로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증가하는 필요성
- ④ 발달 생물학에서 선척적인 것 vs 후천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
- ⑤ 도덕적 발전과정에서의 복잡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 작용

영어를 한글로 정확히만 바꿔주면 수능 영어는 국어 비문학에 비해서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를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영어 문장 구조를 사용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로이쌤이 응원합니다 ☺